

캄보디아에서 드리는 이삭 공동체 이야기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합니다.

갈수록 평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해질수록 더 찾고 갈구하게 되는 것은 온전한 복음과 마지막 때를 바르게 준비하고 조망하는 성경적 종말론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 that cannot Be shaken)를 이미(already) 받았음을 감사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12:28)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야 가는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영적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실재입니다. 비록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고 속이고 파괴하지만, 성도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음을 감사하라고 합니다.

세계가 전쟁으로 혼란스러워질수록, 세계 경제가 유가와 환율로 요동칠수록, 세계가 이념, 인종, 종교 문제로 갈등할수록 더 말씀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묻고 말씀으로 시대와 현상을 반추해야 합니다.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 가장 고결해 보이는 가치나 종교적인 형식을 빌려옵니다. 사탄은 오히려 빛나고 선하며 신령해 보이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나라의 불안정, 불균형, 비성경적인 것을 진리처럼 여기는 사탄 나라의 거짓된 생각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 정화해야 합니다. (히12:29)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탁해질수록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삭 공동체가 걸어야 할 선교의 방향을 되짚어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만유 위에 임하기를 고대하며, 이삭 공동체가 그동안 걸어왔던 E³MC(Ecology Economics Education Mission Community)를 통해 세상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Ecology (생태): 파괴된 창조 세계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땅의 부활**'을 일구고자 합니다.

Economics (경제): 탐욕의 질서를 거부하고 나누고 돌보는 '**희년의 경제**'를 실현합니다.

Education (교육): 신앙과 삶이 통합된 4C 역량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Mission Community (선교 공동체): 이 모든 가치를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부터 이삭 공동체가 걸어온 사역을 정리하고자 박사 논문을 쓰기는 했지만, 저는 신학자도 목사도 아닙니다. 마땅히 불릴 이름이 없어 그저 선교사라 불릴 뿐입니다. 다만 제가 걷는 이 길이 맞는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삭 공동체 선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바르다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가다가 길이 아니면 언제든 조정하고 수정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향하는 곳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성과 나침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이삭 공동체 선교 선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고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다면, 기도로 동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망하기는 이삭 공동체 선교 선언문이 한국 교회와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의 미래 선교 방향성에 선한 영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3월 캄보디아 이삭 공동체에서 김기대 류소현 선교사 드림

이삭 공동체 선교 선언문

1. 선교의 주권: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선교는 우리의 기획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을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화와 재창조의 사역'이다.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그 현장에 동참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18)

2. 구원의 범위: 만유의 회복 (Holistic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을 넘어 고통받는 육체, 불의한 사회 구조, 신음하는 피조물 전체를 포괄한다. 우리는 '영혼 구원'과 '세상 정화'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복음임을 믿는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21)

3. 소망의 종점: 새 하늘과 새 땅 (New Creation)

우리의 소망은 세상 탈출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된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명 살림의 수고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재료가 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1)

4. 실천의 원리: 희년의 성취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는 **희년 정신**을 선교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 빛의 사슬을 끊고, 빼앗긴 기업을 회복시키며, 창조 세계에 안식을 주는 일에 앞장선다.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레위기 25:10)

5. 교육의 사명: 4C 역량을 갖춘 통합적 그리스도인 양성

우리는 다음 세대가 신앙과 삶이 일치된 '**통합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교육하며, 이를 위해 **분별력(Critical Thinking)**, **소통(Communication)**, **연대(Collaboration)**, **재창조(Creativity)**의 4C 가치를 추구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분별하는 지혜.

소통 (Communication): 복음의 평화와 희년의 기쁨을 전하는 화해의 언어.

협업 (Collaboration): 공동체 안에서 함께 땀 흘리며 희년의 경제를 일구는 연대.

창의성 (Creativity):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대안적 삶을 만드는 혁신.

6. 선교의 방식: 성육신적 동행 (Incarnational Presence)

우리는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 함께 땀 흘리는 '**동료 경작자**'가 된다. 현지인과 다음

세대의 고통과 기쁨에 참여하여, 그들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증명한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8)

7.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Foretaste)

교회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희년의 자유와 부활의 생명력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14)

* 급한 기도 부락을 드립니다.

1988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토지와 자유》(대천덕·헨리 조지 공저, 1985) 책을 건네주시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몸소 가르쳐주신 분입니다. 저의 삶과 사역 속에서 평생을 함께해오신 민들레 공동체 김인수 대표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내일 아침(3월 11일) 8시에 '복부 대동맥류'로 인해 인조 혈관 치환 수술 또는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부위가 넓고 커서 개복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금 전 다시 CT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개복수술은 제법 큰 수술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시고,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 되실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